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과 종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의 질문에 사람의 말을 믿고(信) 따르는 것이 신앙(信仰)이며 종교다. 있고 없고 과학적인 논리는 확실하지만, 종교적 논리는 불확실하다. 무조건으로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야 신앙이 되고 종교가 된다.

예수의 부활(復活)을 믿는다는 질문에 믿는다면 따르는 것이 기독교며 기독교를 부활 신앙이라고도 한다. 예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우나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며 역사적인 기록인데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기독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정립하며 믿고 따르고 있다. 기독교의 성경은 66권(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느님의 계시(啓示)를 받아 그 말씀을 인간이 기록한 것이며 종이 가 발명되기 전에 양자죽이나 나무껍질에 기록한 것을 종이의 발명으로 오늘날 성경책이 된 것이다.

따라서 과학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것이 종교며 기독교의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서 라고도 한다.

기독교를 내세(來世)를 위한 종교라고 하며 불교를 현세(現世) 종교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은 변화와 지금의 연속에서 살고 있으며, 죽음은 변화며 육인 백(魄)은 흙으로 변하고 혼(魂)은 윤회하여 환생(還生)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미래가 없다면 오늘이 종말이며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다. 그래서 미래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종말이 아니라 더욱 행복하고 찬란한 극락 천당이 있다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도 내세를 믿으며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인간은 죽음으로 종말(終末)이다"라고 주장하다가 허무한 삶을 깨닫고 미쳐 죽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는 희망찬 미래가 있어야 하며 영생(永生) 희망의 내세가 존재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으로써 종말이 되지만, 인간만은 내세가 있다고 믿고 따르는 것이 종교며, 내세를 불교에서는, 인간은 영겁(永劫)의 세월을 윤회

(輪回)하면서 살며 극락세계가 있고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을 중히 여기며 인과응보(因果應報) 업보(業報)의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업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교의 논리다.

그러나 천당과 지옥을 말하는 종교는 지금까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갔다 와서 보고 하듯이 천당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은 없다. 다만 믿고 따를 뿐이다. 인류 역사는 불확실한 미래를 신앙이라는 종교로 유인하여 발전해 왔다.

예수의 열두 제자 중 요한계시록을 남긴 요한은 제자 중에서 가장 연소자였으며 요한계시록에는 인류의 종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한국의 신천지 계파에서는 자기 계파만이 선택한 지파라며, 자기들을 믿고 따라야 천당에 간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계파를 이단(異端)이라 하고 있다. 요한의 묘는 튀르키예(터키)의 에베소에 있는데 필자는 여행 중 참배하였다.

모든 동물은 살아서 움직이는 혼(魂)과 흙으로 만들어진 백(魄)이 있으며 죽으면 혼은 천당 극락으로 가거나 윤회 환생하고 백은 다시 흙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묘 앞에서는 혼에 대한 절과 백에 대한 절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혼과 백이 있으며 생각하고 사리를 판단하는 영(靈)을 하느님이 부여해 창조했다고 기독교에서는 말한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죽으면 혼백은 없어지지만, 영은 다시 하느님의 결로 간다는 것이 천국 신앙의 논리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는 유대인의 혈육으로 태어났으며, 자기가 삼위일체 하느님이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믿지 않으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여호와(亞衛)를 믿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선택한 종교의 성경과 경전은 믿고 따라야 한다. 인간의 삶에서 내세가 없다면 너무나 허무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는 있어야 하며 내세의 극락세계(極樂世界)와 천당에 가려면 죄를 범하지 않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삶을 살아야 하며, 조물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느님처럼 베푸는 생활을 해야 한다.

칼럼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에 관하여

기고

박종명 여수소방서 예방홍보팀 소방장



2018년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2019년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당시 법 질서안정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소급 법률제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크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더 들여본다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기관이 내포하는 위험성을 3가지로 구분해보고 왜 의료기관의 소급설치 및 협조가 절실한지를 말해보려 한다.

첫 번째로는 인적문제이다. 소방안전관리 측면에서 '취약'이라는 단어와 가장 합치하는 말이 '자력피난 불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자력피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환자들이 상주해있는 장소이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취약시간 등에 근무인원이나 대응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로는 물적문제이다. 물적(物)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성 평가 요소인 가연물의 양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방염성능이 있는 내장재 및 물품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구획 된 병실마다 쌓여있는 침구류, 매트리스, 전기제품, 커튼, 내장재 등은 불안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병인 및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어떤 시설들이 의료기관에 입주해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환경적문제이다. 소방전술 상 '반응시간'의 개념이란 소방대가 지령서를 접수하여 현장에 도착하고 진압활동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문제를 시작으로 소방대는 수백명 피난·요구조자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연결송수관 점령 시간 및 송수시간, 주로 개방된 구조의 거대한 로비를 통과하여 화재가 발생한 층으로 이동하는 시간, 세부적으로 구획 된 병실을 수색하여 화점을 발견하는 시간, 특수차량을 전개하는 시간 등 의료기관이 품고 있는 위험성은 소방전술 상으로도 난제로 분류된다 할 수 있겠다.

물론 시행령으로 제정한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등이(이하, 스프링클러 등)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등이 가지는 가장 확실한 효과인 초기에 화재를 진압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과 주변 가연물을 적시는 효과로 인해 화재의 크기를 제한한다는 점이 의료기관의 화재특성에 가장 적합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경영상의 악화 및 소방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예산 등을 고려한다면 경제활동을 하는 병원경영자 입장에서는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다행인 소식으로 2022년 4월경 대한의협과 소방청 그리고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의 논의 결과 소방시설 설치 소급적용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기로 하였다.

남은 기간 동안 소급설치를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인정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 및 관계부서에서는 경영악화 및 현안에 관련된 문제를 짚어지고있는 의료기관의 입장을 참작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역의 기준 완화 및 충분한 집행 등 다각화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

<p>호남신문 i-honam.com</p> <p>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p> <p>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p> <p>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p> <p>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p> <p>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p>	<p>대표전화 (062) 229-6000</p> <p>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키아일랜드 309호</p>
--	--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No Exit' 마약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기고

김수연 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범죄 양상 중 하나가 마약범죄이다. 예전에는 범죄집단에서만 은밀히 유통되었다면, 요즘은 SNS를 활용한 다크웹이 성행하면서 마약에 대한 접근방법이 더 쉽고 다양해졌다.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도 성인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마약 투약의 부작용과 그 이후의 피폐해진 삶에 대해 알려주기보다는 마약투약법을 별거 아닌것처럼 가볍게 노출 시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마약 옥수수, 마약 방석 등 중독성이 강한 것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여 그 위험성을 낮추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게 한다. 하지만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번만 투약 하더라도 각종 금단증상과 구토,

두통, 호흡 억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또한 마약은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no exit'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경찰에서 마약 단속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찾는 그날까지, 사회는 물론 개개인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